

• 시론 •

‘인재 확보’ 기업미래 달렸다

최근 독일의 보쉬렉스로스 그룹은 경기공업대에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 기증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제조 설비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학 내 전문 기술인력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자동화와 메카트로닉스, 센서기술 등 기술 분야에서 한국인 첨단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길만이 한국 시장은 물론이고 아시아 시장을 정복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여 인재육성에 투자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벌어지는 외국 기업의 인력양성 열기는 인재경영을 화두로 조직 효율성 제고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우리 기업 못지 않다. 기업의 미래는 현저 우수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양성의 방법론도 다양하다. 사내 교육프로그램의 강화는 물론 본사 연수나 진학의 기회도 아낌없이 부여하고 있다. 신사업전략 성공의 초석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몇몇 기업은 최고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인재를 챙기기도 한다.

제너럴일렉트릭(GE) 파워시스템스 등 GE계열 한국법인들은 임직원들에게 ‘해외 CEO 양성과정’의 기회를 수시로 제공하기로 유명하다. 동남아 유럽 등지의 연수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경영환경을 폭넓게 고민하는 데 이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상위 20%를 집중 육성하는 GE 인재경영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과학·체계적 교육과정에 힘입었다는 평가다.

이밖에 한국후지필름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사진영상기자재와 관련한 유명 전시회에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한국HP는 직원 중 매년 5~10명은 대학원이나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MBA과정에 입학한다. MBA과정을 이수하고 싶은 직원에게는 연간 학비의 절반을 지원해 준다. 한국알카텔은 업무에 관한 자기개발뿐 아니라 일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체력단련, 댄스강습 등에도 일정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이들 외국 기업이 이처럼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재 확보’에 그 기업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다. 우리 벤처기업들도 인재확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할 때다.

출처 : 내외경제

• 주요뉴스 •

중기청, 우수 수출중소기업인 선정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수출중소기업의 사기진작과 수출 촉진을 위해 ‘제3회 수출중소기업인상’을 개최, 3/4분기 수출실적이 우수한 ‘프릭스’ 등 6개 중소기업을 시상했다.

금번에 선정된 업체는 수출액·수출증가율·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변신한 사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2개씩 총 6개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이번 수상대상 6개업체의 대표는 모두 이공계출신이다. 이는 중소기업도 기술력이 있어야만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단면을 보여준 사례로, 최근 탈이공계 추세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도 중기청은 수출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수출금융, 기술혁신자금지원,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에 있어 혜택을 부여해 수출 선도업체로 육성할 예정이다.

벤처위기, 금융감독 미독립 때문

벤처위기는 ‘금융감독의 독립성 미흡’ 때문에 초래 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팀장급 이하 직원들의 모임인 직급별 대표자회의에서 “최근 벤처산업의 위기는 금융감독이 다른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전략한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정부가 벤처 육성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금융감독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최소한의 안전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직급별 대표자회의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탄탄하지 못한 재무구조를 가진 벤처기업들도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금감원 대표자회의는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개편되어야만 코스닥시장에서의 신뢰회복과 건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